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127.50원에 마감

2일 환율은 전일대비 4.40원 하락한 1,127.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40원 하락한 1,128.50원에 개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부양책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위험선호분위기 회복에 환율은 갭다운 출발하였다. 장 초반 1,120원대 중반으로 레벨을 낮춘 뒤 꾸준한 달러 매수 수요 유입으로 장중 내내 무거운 흐름을 보였다. 뉴욕 금융시장이 휴장을 앞둔 가운데 변동성이 제한되며 박스권에서 등락하다 전일 대비 4.40원 하락한 1,127.5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2.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20.5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8.50	1129.00	1126.70	1127.50	1127.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3.12	1023.12	1017.60	1018.44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2.94	1333.67	1324.47	1326.1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7	-0.37	-1.29	-2.57
	결제환율(수입)	0.4	0.83	1.06	1.5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호조에 달러화 강세...1,13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27.50원) 대비 1.30원 상승한 1,129.0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91.6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67.5만명을 크게 상회하였다. 고용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고용 회복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호조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7%를 회복하였고 달러 인덱스도 92.9선으로 상승하며 달러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달러-원 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 회복은 그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6.50 ~ 1132.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634.1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0원 ↑
	■ 美 다우지수 : Holyday((E, F) Good Friday)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7.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